

# 진출입로 3곳 ... '시민공원'도 조성

【춘천】속보=춘천시청 신청사 설계안이 최종 확정되며(본보 지난 5일자 16면 보도) 앞으로 청사가 어떻게 신축될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7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는 내년 3월 착공해 2년 뒤인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의 면면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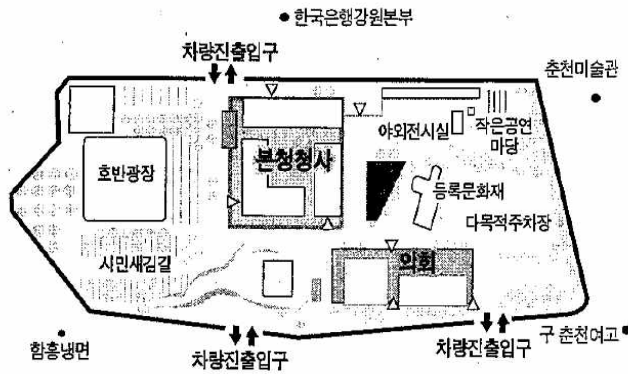
## ■지상공간 최대한 활용·진출입로 3곳

새 청사는 수요일 예상 주차대수 총 726대(자동차 602대, 자전거 124대) 대부분을 지하에 주차할 수 있게 했다. 지상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지하엔 자동차 502대가, 지상은엔 자동차 100대와 자전거 124대가 각각 주차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은 추후 명동지하상가와의 직접 연결도 추진된다.

차량 진출입로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 사이길 방면(옥천길) 1곳, 옛 춘천여고 오르막길(시청길) 방면에 2곳 등 총 3곳으로 분산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다.

## 춘천시 신청사 어떤 모습 갖추나

### 춘천시 새 청사 시설 배치도



## 지상 녹지공간 최대 활용... 지하 명동상가와 연결 시민공원·문화광장·통합청사·봉의상징 4개 특화

### ■4가지 특화계획으로 차별화

새 청사는 시민공원, 문화광장, 통합청사, 봉의상징 등 4개의 특화계획을 도입했다. 지상에는 풍성한 녹지를 조성한다.

뜨거운 여름에도 푸르른 녹음과 그늘을 제공하는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문화예술거리, 춘천예술마당, 춘천향교와 연결되는 기존 골목길을

자연스럽게 시청으로 이어지도록 해 경계 없는 '문화광장'으로 만든다.

청사는 본청(지하 2층, 지상 8층)과 의회(지하 1층, 지상 3층)를 구 춘천문화원 건물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업무 독립성과 소통이 가능한 '통합청사'로 신축한다. 오는 22일 예정된 도문화재위원회에서 근대문화유산인 구 춘

천문화원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더라도 해당 공간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각 건물의 조형을 일관되게 한 점은 자연스럽고 서정적인 춘천의 정취를 살려 새 청사를 일명 '봉의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 ■시민광장 우선 개방 고려한 단계별 시공

기존 청사는 내년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이어 토목·지하골조(4개월), 지상골조(12개월), 광장 우선 개방 및 내부마감공사(4개월), 부대공사(2개월) 등의 공정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한다. 관련 예산은 800억원이다.

시는 2년여간의 공사기간에 옛 춘천여고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동용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에 가장 적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인 청사를 만들겠다"며 "공사기간 소음과 교통체증, 임시청사 활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 내년 3월부터 공사... 주차·교통난 '과제'

## 뉴스 & 기획 춘천시청사건립

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순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4일 건립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실시설계의 토대가 될 설계 선정했다.

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순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4일 건립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실시설계의 토대가 될 설계 선정했다.

도를 내고 있는 신청사 건립과 앞으로 과제를 짚어봤다. 설계안도 확정 '일사천리' 난 1957년 건립된 뒤 수십년 율을 보내며 노후해진 춘천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여론 형성된 건 지난 1995년. 후 2003년 청사건립기금 적 시작됐고, 2007년 시청사업 위원회가 구성되며 신청

2018년 완공 예정  
예산 900억 투입  
주변도로 확장 맨  
건립비 크게 늘듯

사 건립은 본격화될 듯 했으나 이듬해인 2008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급제동이 걸렸다.

잠잠해졌던 신청사 건립이 핫 이슈로 다시 떠오른 건 지난 7월. 신청사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 6기 최동용 시장 취임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춘천시는 시민토론회와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현 옥천동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춘천시 신청사건립 추진 현황

년(월)	내용
1995년	청사 신축 여론 형성
2003년	청사건립기금 적립 시작
2007년	시청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08년	정부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청사 신축 제동
2014년(7월)	청사 신축 재추진
" (12월)	입지로 현 옥천동 부지 선정
2015년(1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
" (3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발주
" (5월)	설계 공모
" (9월)	설계안 확정

당시 옛 캠페이지를 신축 부지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으나 큰 논란없이 입지 선정을 마쳤다.

춘천시는 후속으로 기본계획 수립(1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설계 공모(5월) 등의 절차를 밟는데 이어 설계안까지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시는 설계안을 토대로 한

실시설계를 내년 1월 완료하고, 3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5월 완공 및 입주할 계획이다.

■ 건립비 900억원 + α (?)

춘천시는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비용을 9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 가운데 600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300억원은 자체 예산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순차적

로 조달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변 도로를 확장할 경우 실질적인 신청사 건립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현 정면에서 중앙로터리를 연결하는 일방통행로를 확장할 경우 매입해야 하는 건물 2동의 매가는 2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기간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과 주차난도 골칫거리다.

임시청사로 사용될 옛 춘천여고의 주차장 규모는 민원인 전용으로 쓸 150면 등 200면 미만으로 현재 324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적다.

춘천시 관계자는 "임시청사 민원인 차량과 신청사 공사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교통안내원도 배치해 혼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사업비 182억 절감 가능”

총 182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는 최종 사업비 절감을 확정짓기 위해 7일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빙상경기장 건설공사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자문위원회에는 군, 체부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도 참여해 사업비 절감 문제와 함께 빙상경기장 건설 총사업비 예산지원, 대화운영 관련 자문 등 빙상종목 관련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절감문제를 최종 확정 짓은 후 사업비 절감 방안이 맞춰 절감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영 도 동계올림픽본부장은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빙상경기장의 설계 변경이 마무리되고, 경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테스트이벤트 진행에 반드시 경기장이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10%,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은 30%, 강릉하키센터와 관동하키센터는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백오인

### 도 “4개 시설 설계변경”

### 오늘 강릉 건설자문위

강원도가 강릉에 건설 중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의 사업비 182억원 절감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 등 4개 빙상경기장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설계변경을 통해 총 182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빙상경기장 사업비 절감을 위해 설계경제성 검토(VE)를 2차례 실시한 것은 물론 수차례 자체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107억원,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29억원, 강릉하키센터 43억